

# NFRI NEWS + 2010 Summer



## 2010 해외여름학기 연수프로그램 시행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매년 여름 플라즈마 및 핵융합 분야 국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 연구기관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2010 해외 여름학기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최종 참가자로 선정된 5명의 국내 관련 전공 대학(원)생들은 영국 컬햄(Culham) 연구소 및 독일 막스프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Max-Planck IPP)에서 약 1~2주 정도 머물며, 다양한 나라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플라즈마 물리 및 핵융합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고 각 연구소의 실험실 및 시설을 견학하게 된다.

## ITER국제기구 - 핵융합(연) 기술협력 약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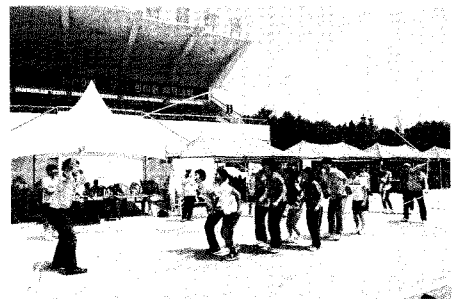


우리 연구소는 4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ITER국제기구와 우리 연구소 간 기술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ITER건설과 시운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게 되며, ITER국제기구는 ITER건설 및 시운전 관련 중요한 사업 결정과정에서 KSTAR제작을 통해 축적한 우리나라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ITER와 같은 초전도 방식을 적용해 개발된 KSTAR를 ITER 국제기구에서 선형연구장치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010 한마음 NFRI 체육대회

'함께 뛰고, 나누고, 즐거운'이라는 모토로 5월 20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종합운동장에서 2010 한마음 NFRI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시온보육원 아이들을 초청하여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각 사업단 및 부서들은 소통, 나눔, 화합, 동행이라는 이름의 팀으로 나누어 OX퀴즈와 선발, 축구, 족구, 줄다리기, 2인 3각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참여함으로써, 열띤 응원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화합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NFRI



##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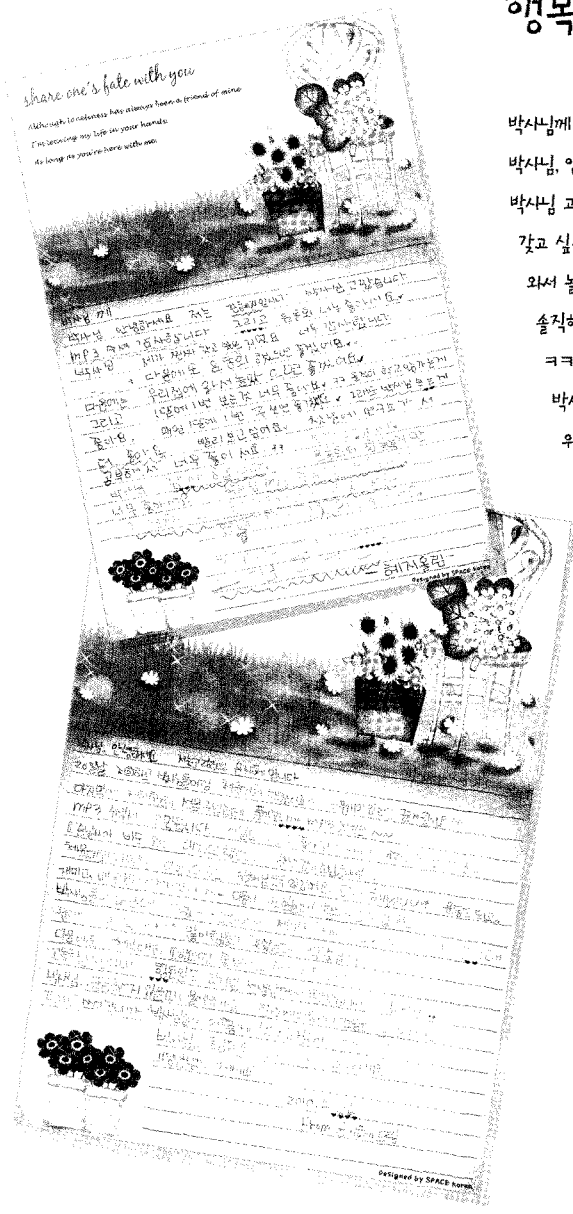
우리 연구소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사업장의 안전 의식 제고와 재난 상황별 체계적인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다. 금번 훈련 참가

를 통해 비상사태 시 연구소의 대응 능력과 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대응책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중요시설인 KSTAR장치의 피해 예방과 연구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발판이 되었다.



## 사랑으로 함께한 행복한 운동회를 마치고

시온보육원 아이들로부터 받은 편지들



박사님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지입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mp3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동회 너무 좋았어요. 박사님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거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운동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 너무 좋아요. ㅋㅋ

솔직히 학교 안 가는 게 좋아요. 빨리 보고 싶어요. 첫날에 연구소 가서 공부해서 너무 좋아요.

ㅋㅋ 진짜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운동회 때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박사님 mp3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 혜지 올림 -

박사님에게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 2학년 윤지혜입니다.

20일 날 저희하고 박사님들이랑 체육대회 했잖아요?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웠어요. 마지막에 저희한테 선물 주셨는데 풀어보니까 mp3 이었어요.

mp3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비도 오고, 해도 뜨고 했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체육대회 하면서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운동도 되고 재미있고, 배우면서 이것저것 하니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들이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와 함께 체육대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도 체육대회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되고 나니까 힘든 일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조금 나아요. 박사님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볼게요.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편지를 쓰다 보니까 '박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힘든 일 있으면 항상 힘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0. 5. 26

윤지혜 드림